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국가 재건을 위하여

(느헤미야 7장 73절 - 8장 18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킨 느헤미야의 과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을 수축한 후 이어 국가 재건을 서둘렀습니다. 성 수축은 국가 재건의 일차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거의 4세기 동안 국가 개혁 운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7장 초반부에서는 도성에서 살 수 있는 거민들을 위로하고 국가의 영적 갱신을 준비하는 한편 후반부에서는 율법을 읽고 회개와 갱신이 일어납니다(8-10장).

### 1. 국가적 갱신 운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공회에서 읽었습니다(2-12절). 지방에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별도로 세운 강단 위에 서서 명망 있는 13명의 레위인들을 배석시키고 율법책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그들은 경건한 자세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국민적 갱신과 부흥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백성들이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느헤미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지키려 하는 이들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운동이 곧 교회갱신 운동이요 그것만이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 2. 부흥하는 단계들

#### (1) 에스라는 기도로 시작했다(6절)

기도는 율법을 읽기 전에 있었습니다. 책을 펴고 설교 전에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로 찾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읽는 것은 단순히 시민적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모세 5경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은 백성 중에서 그 권위를 이미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백성들이 기대한 바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백성들이 기대한 바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 (2)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3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섯 시간 동안이나 읽었습니다. 장로교의 요람지인 스코틀랜드 교회는 예배 시간에 'beadle'이라 칭하는 이가 성경을 들고 입장하여 강단 위에 놓고 그날 읽을 성경을 열어 놓은 후 강단에 목사를 안내합니다. 이때 모든 교인은 기립하여 목사가 자리에 가서 앉을 때 함께 앉습니다.

비평가들은 bibliolatri, 즉 책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예배하는 이들이 듣겠다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 (3)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7-8절)

율법을 깨닫도록 해석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레위인의 직분은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번역하고 해석하여 깨닫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8절).

강해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제설교는 감동적이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설교하려면 말씀을 강해해야 합니다. 설교의 주목적이 반드시 교회 부흥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로 번역하고 깨닫도록 설명하면 갱신과 개혁운동은 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는 “종교개혁의 전령사는 갱신된 설교(renewed preaching)였다. 이것은 설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일 뿐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설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 (4) 죄를 슬퍼했다(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 (5) 말씀을 깨달은 후 큰 기쁨의 축제를 했다(12절)

그들은 물론 다시 죄를 지었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갱신이 요청되었습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갱신이 필요합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 다시 에스라 집에 모였습니다(13절). 날마다 말씀을 낭독하고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1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주신 성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10절)

“여호와와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10절)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행복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또 사랑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기쁨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홍해작전 승리의 행군 계속 돼

국가와 교회 가정의 홍해를 건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인 2005 홍해작전이 승리를 향한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조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혼란과 경제문제 그리고 예배당 헌당, 가정의 갖가지 기도제목이 넘치는 이때 새벽 미명의 시간에 삼삼오오 모여드는 성도들의 발길은 본당으로 이어져 새벽기도에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넘치고 있다.

홍해작전 중 매일 새벽 강단은 이종운 목사의 사도 신경 강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큰 은혜의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

으며 철저한 회개와 홍해를 건너기 위한 뜨거운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

홍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건져내 함께 홍해를 건너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또한 어린이나 노인 누구나 홍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면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우리를 위로해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 성경 필사 순조롭게 진행 중

### 첫 주간 350명 이상 참가

6월 6일 당회원 및 교역자들을 필두로 시작된 성경 필사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로하신 권사님으로부터 중·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전가족이 필사에 참가하기도 하고, 예비다부 형제자매들도 3~4시간에 걸쳐 필사적으로 필사에 참가하는 등 성도들의 호응이 뜨겁다. 위원회는 첫 주에 벌써 35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여하였고, 금주에도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가 신청을 하여 7월 말 이전에 개별 필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성도들이 필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사 원고를 제작하는 802호에는 20여 명의 필사위원들이 민순구 장로(진행팀장)의 지휘 아래 더위 속에서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위원회는 참가를 신청하신 성도들이 순례자에 나온 차례를 보고 반드시 교구나 교회학교를 통해 사전

에 성경원고와 연습지를 받아 암송 및 필사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득이 참가시간을 변경하거나 추가 신청을 하실 경우에 반드시 위원회나 교구에 사전에 통보하여 혼선을 빚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참가자는 시작 10분 전까지 A 조: 402호, B 조: 202호로 오셔서 카운을 입고 원고를 받은 후, 기도로 준비하고 외운 성경구절을 암송한다.

경전회 후 안내에 따라 먼저 연필로 1차 필사를 하고 네임펜으로 본 필사를 실시한다. 본 필사는 전시본과 보관본을 위해 2회 필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유년부와 초등부 어린이들은 전원 암송한 구절을 필사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시편을 암송하는 열의가 대단하여 여름성경학교 때 전원 필사 참가를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 금주의 성구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4-16)

Therefore, since we have a great high priest who has gone through the heavens, Jesus the Son of God, let us hold firmly to the faith we profess. For we do not have a high priest who is unable to sympathize with our weaknesses, but we have one who has been tempted in every way, just as we are—yet was without sin. Let us the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rews 4:14-16 [NIV])

## 성경암송, 필사 참가일정표

(A조: 1~7교구, 장소: 402호)

(B조: 8~14교구, 장소: 202호)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6/18(토)	
1부 (오전9시~ 오전10시)	배병이(1) 문옥일(1) 김인숙(1) 신일순(1) 장복순(1) 이영미(1) 김화경(1) 김준자(1) 김자숙(1) 최태경(1) 황규영(1) 원희숙(1) 김경숙(1) 유복달(4)	최봉이(2) 이영애(2) 이은자(2) 김복순(예) 한기옥(1) 최경희(1) 백예영(1) 조효순(4) 김자숙(1) 최태경(1) 한현숙(2)	고은옥(1) 박명희(4) 경화창(5) 이은희(3) 심근집(6) 정수은(6) 유우자(5)	박문옥(3) 강현경(3) 이경실(3) 이은희(3) 신선주(3) 김복연(3) 윤종희(3) 강영자(3) 배도경(3) 노영옥(1)		유근중(2) 오해숙(2) 이종복(예) 박영숙(1) 이은희(1) 윤성호(5) 안지영(5) 홍경희(7) 홍영선(3) 김필자(1) 이혜진(1) 이인경(1) 유복달(5) 이근숙(5) 홍해숙(1) 최두숙(2) 이보경(2) 한혜실(3) 유수영(2) 김태경(예) 김현숙(예) 김민정(예) 이은희(1) 최경희(1) 이은희(3) 김태영(7) 김태영(7) 신정현(7) 이현숙(3) 한정현(3) 김남숙(1)	
	2부 (오후2시~ 오후5시)	임종자(1) 나영숙(3) 유영준(3) 소선자(3) 홍지나(3) 백혜숙(4) 문영숙(4) 박동석(5) 이순배(5)	이봉규(3) 전희경(3) 오유석(3) 김지영(3) 김은미(3) 유영준(3)	이윤경(2) 이경수(2) 조영미(2) 이영숙(4) 김은희(3) 오진숙(1) 조철기(4) 김영란(4) 임해원(5) 남옥진(5) 김수옥(5) 김영희(5)	김영희(3) 필용범(3) 이이성(3) 민혜경(3) 홍광숙(4) 김현주(4) 윤용근(5) 윤준범(5)	김분도(3) 배계숙(4) 이현주(4) 이승희(4) 김용래(7) 송미영(1) 백수남(5) 김수경(5)	김은숙(1) 손영희(1) 이현숙(1) 안희숙(1) 이은희(1) 오귀택(1) 박정희(1) 이은희(1) 박희희(1) 오유복(3) 안정미(예) 유종숙(예) 황정혜(예) 윤수숙(1) 손영애(1) 김지영(1) 안영애(1) 김지영(1) 박진숙(1) 유정숙(5) 이경실(5)
3부 (오후7시~ 오후10시)		허원숙(2) 박소현(2) 현주환(2) 홍승자(2) 김유선(2) 엄재희(2) 김은경(3) 오승민(3) 이해순(3) 진교남(1) 박찬성(1)	장두원(3) 이미송(3) 이순임(예) 김홍주(예) 고유자(1) 박희서(4) 김미자(4) 김영주(4) 오영숙(4) 강숙경(대) 강호진(3)	이승래(5) 김순복(5) 문순순(5) 전미경(5) 최수경(3) 이상호(7) 김차순(7) 송은선(3) 이주현(3) 조남원(3) 조동희(3) 김은숙(4) 정해원(4)	김성필(4) 윤경희(4) 송태기(4) 송태기(5) 이경애(5) 김수현(3) 김유윤(3) 김선아(5) 이영주(5)	이한나(대) 윤성남(3) 황혜자(5) 이승준(4) 최문주(4) 홍은표(7) 김민철(3) 박찬미(3) 오재진(3) 이예리자(3) 장은규(3) 홍해원(5)	

	6/13(월)	6/14(화)	6/15(수)	6/16(목)	6/17(금)	6/18(토)
1부 (오전9시~ 오전10시)	장재연(9) 박종민(13) 강영순(13) 전희영(13) 김영숙(13) 송인숙(13) 박영숙(13) 조윤희(13) 유승연(14) 김한주(15) 전인숙(14) 오자경(14)	정숙원(11) 민봉임(14) 이선희(14) 서수녀(14) 한태선(14) 서순희(14) 송희숙(14) 이준수(11) 이경희(11) 장재술(11) 박태규(11) 김희경(11) 김진희(11)				이명희(14) 유상필(14) 김영남(14) 오교익(10) 김승주(11) 예환식(11) 송금자(11) 서정숙(11) 하순(11) 전훈덕(8) 강영선(8) 김명중(8) 김선숙(8) 김정희(8) 박은주(8) 하성진(14) 안진희(14) 고경순(14) 조수파(14) 김규영(14) 김현숙(10) 권배호(11) 정기동(11) 김현숙(9) 정인주(9) 김경애(9) 이재원(9) 김윤숙(9) 박소현(13) 천경숙(13) 채해숙(13) 송재현(14) 신기영(13) 정진훈(11) 홍성애(14) 전순례(14) 김명숙(14) 김정임(14) 김영(14)
	2부 (오후2시~ 오후5시)		최영옥(9) 최영란(9) 이영자(8)	이성애(9) 임종자(8) 채덕희(8) 김영경(8) 박후남(9) 이명주(8) 김현영(14) 이신애(14) 최원인(14) 김상원(14) 최금자(11)	최숙자(14) 박종숙(14) 김재신(9) 서순영(9) 박숙(11) 전용택(11) 박혜선(11) 김선미(11) 권화진(9)	최남준(14) 정동호(14)
3부 (오후7시~ 오후10시)		유기찬(14) 이상성(14) 김경환(14) 김명실(14) 김종자(14) 조선훈(10) 이영근(11) 안인호(11) 김준서(14)	윤용미(14) 김표(14) 유은자(14) 남태영(14) 정진훈(11) 정유경(11) 유숙민(11) 김희석(11)			



# 아버지여 우리를 위로하소서!

2005년 6월 6일!

새벽을 깨우며 홍해작전 진군 나팔이 울렸다.

원근 각처에서 어두움을 뚫고 달려 나오는 서울 교회 홍해작전은 벌써 4시면 개전 준비가 시작된다. 먼저 차량위원들이 각자 제 위치에 서있고 찬양대의 찬양 연습으로 조용한 가운데 은 교회가 거룩한 긴장감마저 감돌며 안내위원들의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분주한 발걸음들은 이미 홍해 작전의 승리를 예감하고 있다.

지난 14년간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6월이면 20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한국 교회의 불씨를 지피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의 가로막혀있는 홍해를 가르기 위해 기도와 말씀 작전에 들어갔다.

유아부에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삼삼오오 짝지어 엄마와 아빠 손에 손을 잡고 혹은 다락

방 별로 속속 들어오는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배당 안에는 우리를 맞이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함과 따스함으로 가득 차있고 "아버지여 우리를 위로 하소서!" 성도들의 울조리는 기도의 소리였던 함성은 사랑으로, 용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성도들의 거센 홍해의 몸부림인 듯하다.

홍해를 건너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는 40장 찬송으로 드디어 홍해작전의 첫 예배가 시작되었다.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의 잘못된 해석과 바른 이해에 대한 "하나님은 자신이 삼위일체적 존재이심을 당신님의 경륜과 계시 가운데서 드러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삼위일체적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한 첫

강론에 이어 20일 동안 사도신경의 바른 이해와 뜻을 펼쳐가신다.

그 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입으로만 고백된 사도신경의 그 큰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한 말씀으로 홍해 작전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다.

첫째날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 둘째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셋째날, 섭리란 무엇인가?, 넷째날, 창조와 섭리를 믿는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 다섯째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를 설교하였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사도신경의 비밀한 것들에 대해 온 성도들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하나님으로 연결시켜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깨어나는 신앙의 증진과 성숙함에 자못 큰 기대를 갖고 홍해작전의 승리를 확신한다.

신동기(편집부)

서울교회 헌당 14대 행사-①

## 서울암송필사성경을 시작하며...



▲ 첫 성경필사 시작을 위한 기도회(만나홀)

신문지 한 장 크기의 대형 원고지 2장씩을 받아 든 필사자들의 표정엔 사뭇 긴장감이 묻어났다. 구별된 자의 마음으로 흰 가운을 갖춰 입고 지정된 책상에 앉은 필사자들, 고요한 찬송으로 마음을 가다듬는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감사예배를 마친 뒤 이윽고 필사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당회장 이준용 목사가 창세기 1장 첫 페이지를 맡았고 원로, 은퇴장로, 당회원, 무지개회원의 순서대로 구약과 신약 각 권의 첫 페이지를 맡

았다. 준비요원들이 미리 필사용 원고지에 장과 절, 제목 등을 적어놓았지만 띄어쓰기와 글자가 모두 원문 성경 그대로여야 하므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연습을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떨려서 틀리더군요" 애를 쓰며 필사를 하다가 잠깐 휴식

을 취하려 나온 한 집사님의 말이였다. 감사요원들의 도움으로 틀린 글씨를 수정할 수 있는데도 필사자 대부분 긴장된 마음은 진정이 어려워 보였다. 곳곳에서 틀린 글자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평소 필기에 능한 어느 장로님은 필사작업 중 경계대상 1호는 교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을 잘 완성하고 난 뒤 이제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틀린 글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앞으로 두 달여간 필사에 참여하는 1717명은

각자 지정된 성경 한 페이지를 2장씩 쓴다. 이와 별도로 유년부와 초등부 학생들은 각자 한 구절씩 암송을 한 뒤 그 암송구절을 쓰게 할 계획이다. 8월에 완성될 두 권의 성경 필사본은 하나는 영구보관하고, 또 하나는 전비용으로 성도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원고지 앞면만 쓰기 때문에 완성된 필사본의 두께는 적어도 30센티미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를 섬기고 있는 김세재 장로는 "필사본을 축소한 축쇄판을 교회 설립 14주년을 기념해 14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필사에 참여한 각 가정에게 나눠주고 남은 성경은 하버드 대학 등 해외 유명대학과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필사작업을 마친 이들은 마치 주인에게 칭찬받은 심부름꾼처럼 신이 난 표정들이다.

"홀가분했지만 한편으로는 필사한 구절이 평생 간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같았어요..."

분명 자신의 손목과 손가락을 움직여 성경 말씀을 쓰는 것이었지만 필사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기독교사에 유래를 찾기 힘든 이번 대작업이 성도들의 가슴에 큰 은혜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민철(편집부)

장로 가정 탐방 - 이관규 장로 가정편

# 하나님 중심의 삶

온 성도가 한창 흥해를 건너고 있는 이른 금요일 새벽, 8층 만나홀에서 장로님을 만나 뵈었다. 방금 기도회를 마치고 올라오신 장로님은 여운이 가지지 않은 듯, 새벽흥해의 은혜 물결 속에 잠시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다.

이관규 장로님 가정은 이순영 권사님과의 슬하에 영국으로 유학가 있는 은유와, 겸손남매를 두고 계시며, 40여 년 전, 주일성수를 지키기 위하여 용감하게 직장을 그만두신 이후로 권사님과 함께 자영업을 운영해 오고 계신다. 청년의 때에 용단의 선택을 가능케 했던

것은, 주일만큼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농사일을 모두 접어두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던 유년시절 받은 은혜와 가르침 덕분이다. 그 때의 형제들이 지금은 모두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 번족한 오늘의 은혜도 주일성수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장로님은 말씀하셨다.

이순영 권사님은 모태신앙이었던 장로님을 만나면서 하나님도 만나게 되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헌납함에 있어서 늘 장로님보다 넘치게 바치고 크게 생각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이제는 권사님이 장로님의 든든한 영적인 후원자가 되었



음을 느끼고 또한 더욱 감사하게 되는 요즈음이다. 2001년 장로 임직을 받으시고 차량봉사부와 상조부, 식당봉사와 교구장을 두루 섬기시었고, 2005년에는 10교구장과 장년4부 교사, 식당 봉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장로님은, 10여 년 전 서울교회 장로에 헌신하면서 그동안의 지연과 세상의 이익을 뒤로 하고 이 교회를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래 기려 왔다.

서울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보며 긍지와 소망을 갖는 한편,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오직 하

나님만을 바라고 생각하는 이종윤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신망이 날로 두터워지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을 바라보고 배우며 지내온 날들이 하루처럼 짧기만 하시다고.

장로님은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목표하시는 것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마6:33)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흥해를 건너는 이 새벽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것을 당부하셨다.

나소정(편집부)

## 파이프 오르간 초청 연주회

6월 14일(화) 저녁 7시30분



제3회 서울교회 화요 정오 음악회의 마지막 순서로 14일(화) 저녁 7시30분에 광동순 교수(연세대)의 연주로 장식된다. 광교수는 연세대와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파이프오르간 연주자로 알려졌다. 많은 참여로 깊은 감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란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5일(수) 군선교 조찬 기도회에서 설교한다. 16일(목) 장로교신학회 월례신학논문 발표회를 소집한다.
- 이사: 조효순 집사(4교구) 관악구 신림본동 T. 873-5067
- 수상: 11교구 송영재 집사(합정회 집사) 5/31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 이전: 믿음인테리어 (12교구) 이인수 집사, 나가태 집사 용인시 수지 동천동 879-5번지 T. 031-263-0553
- 전화번호 변경: 오정식 목사(5, 6교구지도) 010-3227-5407
- 주간 식당 봉사: 스테반회 (6월12일) 권사회(6월19일)
- 금주의 식사 제공: 박금성 성도 이윤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일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청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 ) · 중국인터넷방송 - ( <a href="http://www.c-highway.com">http://www.c-highway.com</a> )

흥해작전에 참가하며

## 청년들의 흥해가 열리기를...

황유석(청년부 회장)

흥해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더한 간절함과 사모함, 그리고 열심을 주셨습니다. 청년부에선 이미 흥해작전 몇 주일 전부터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하여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했으며 또 한 수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이한 2005 흥해작전은 저희 청년들에게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았습니다. 흥해 작전 첫 날부터 시작된 청년들의 물결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에는 몇몇 청년들의 카풀 헌신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지에서부터 출발하여 곳곳을 다니며 청년들을 태우는 형제, 더 멀리서 함께 오는 형제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기를 모아 흥해작전 기간 중 세 번의 토요일을 청년부 총동원의 날로 정해서 흥해작

전 새벽기도회 후 601호에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흥해작전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뜨겁게 기도하는 열기, 기도 후 해와 같이 빛나는 청년들의 얼굴을 볼 때, 모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아래서 승리를 위해 부르심을 입은 선한 군사들임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는 이번 6월 26일을 1차 전도초청주일로 정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된 청년부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월, 추수감사절과 현당의 그 날까지 전도와 갖가지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세운 서울교회의 2세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큰 부흥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데 앞장서는 청년부가 되고자 합니다.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05흥해작전에 은혜받고 승리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4. 서울 암송 · 필사성경 제작이 순조롭도록
5. 북한의 핵문제 전쟁없이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류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